

광주시교육청-호남철도차량정비단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업무 협약'

다양한 직무체험 제공...고졸 취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광주시교육청과 한국철도 호남철도차량정비단(단장 김광수)이 정비단 사업장(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8일 체결했다. 광주·전남권역 유일의 고속철도 직무체험으로 미래 철도인재

양성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이번 협약은 고졸 취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광주시 관내 직업계고 학생의 고속철도 직무체

험과 현장견학 프로그램은 철도 사업의 이해로 이어져 한국철도의 하반기 채용 전형 시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호남철도차량정비단의 한 관계자는 "직업계고 학생들은 방역과 더불어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KTX 첨단 정비설비·공정 등의 현장견학을 하고 운전실 탑승 체험도 가질 예정이다"며 "별도로 2일간 운영되는 직무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중장비 기술부 현장 체험을 하고 코레일 채용정보와 입사 꿀팁도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우재학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직무체험과 같은 맞춤형 운영교육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취업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예정이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광주 지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의 지역 산업수요에 맞는 기능 인력 양성에 활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전남교육청, 지역대학과 교육협력 강화 지역인재전형 확대, 농어촌교육 지원 방안 등 모색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지역 인재를 키우고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3일(수) 진도솔비치리조트에서 광주교대, 목포대, 순천대, 전남대 입학관계자 및 각 대학에 파견된 전남교육청 교육협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전남교육청과 각 대학 간 전남 지역의 일반고 관련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안내하고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전남교육청에서 지역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 얻어낸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 증가 성과

를 분석하고, 앞으로도 전남의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이밖에 각 대학 별 전년도 입학 결과를 분석하면서 지역 학생들의 진학 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또한, 대학과 연계해 우리 지역 일반고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전남교육청은 현재 지역 대학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 및 농어촌 교육소외지역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대학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김정환 기자



목포대, 시·군·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선정

조선해양산업 융접구조성능 초일류화 지원

국립목포대학교(총장 박민서)가 지난 6월 8일 발표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2020 시군구 지역 연고산업 육성(비R&D)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시군구 지역 연고산업 육성(비R&D) 사업'은 시·군·구 연고 산업을 발굴, 육성, 고도화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으로 매출 신장, 일

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목포대 산학협력단은 '서남권 조선해양 산업 융접구조성능 초일류화 지원사업' 과제가 최종 선정됐으며,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전라남도) 포함 총 16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또한, 사업 운영을 위해 목포대 중형

조선산업 지역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중소형선박 진수 지원센터, 해양케이블 시험연구센터 및 전남대불산학융합원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목포대는 조선해양 산업의 친환경 및 일반소재 융접기술 혁신평가, 스마트 생산기반 제품 고급화, 연고기업 인식개선, 인증서 발급·시제품 제작·애로기술 해소, 유망기업 패키지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등굣길 사회적 거리두기 유관기관 캠페인

전남도보성교육지원청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백남근)은 8일 벌교초등학교 교직원 및 전교생 320여명을 대상으로

로 등굣길 사회적 거리두기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캠페인을 실시했다.

보성교육지원청, 보성경찰서가 함께한 이번 캠페인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개별 포장된 마스크와 기념품을 나누어주며 손소독제 사용, 교실 속 거리두기, 학교 안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남근 교육장은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제로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평화·통일 계기교육

전남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평화·통일 계기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자 6·25전쟁 70주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각 학교 별로 특색에 맞는 다양한 수업과 계기교육에 나설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국가기념일 관련 역사인물 탐구·체험활동 계기자료와 수업 콘텐츠, 홍보영상 등을 안내하고 학교 별로 찾아가는 통일 전시회를 열어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와 평양시민의 일상을 간접 체험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도교육청 1층 로비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기념해 '함께, 평화로, 미래로' 전시회를 연다.

김정환 기자

교직의 첫발! 꽃길만 걸으세요

영암교육지원청, 초등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애)은 6월 9일 교육장실에서 초등학교 신규교사 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임명장 수여식은 코로나19로 각종 행사 축소·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으나, 신규교사 대상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자제 지도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실시하게 되었다.

용당초등학교에서 교직의 첫발을 내디딘 1명의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임명장 수여와 선서문 낭독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장과의 면담을 통해 교육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 및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래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교직생활에 대하여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규교사인 용당초등학교 교사는 "교직의 시작을 코로나19로 등교개학이 연기되어 온라인 수업을 하던 학생들이 모두 개학하는 날 임명장을 받게 되어 더욱 기쁘나 그만큼 책임감도 더 크다."며 "정년하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가 되겠다."고 했다.

김성애 교육장은 "지금의 교육현장은 코로나19로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 동료 선생님들과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렵거나 모르는 것은 선배 선생님들께 묻고 자기 연찬을 통해 다양한 교수법을 배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격려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